

## 2위~5위 35점차 ... 전쟁은 시작됐다



**F1 2011 드라이버 톱10** 10월 10일 현재  
2011년 그랑프리 선수별 누적 점수(포인트), 일본 그랑프리(15라운드) 이후 기준

제바스티안 페텔	1	324점
젠슨 버튼	2	210
페르난도 알론소	3	202
마크 웨버	4	194
루이스 해밀턴	5	178
펠릭스 마샤	6	90
니코 로즈버그	7	63
미하엘 슈마허	8	60
비탈리 페트로프	9	36
닉 하이드필드	10	34

자료/모바일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조직위원회

올해 F1 코리아 그랑프리 최대 관심사는 누가 우승을 차지해 치열한 2위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가다. 여기에 지난해 코리아 그랑프리 챔피언인 페르난도 알론소와 이 대회에서 불의의 사고로 리타이어(중도 포기)한 제바스티안 페텔의 실속전도 불거리를 더하는 요소다.

2위 다툼이 관심을 끄는 것은 페텔이 지난 9일 일본 그랑프리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올 시즌 309점을 득점하며 지난해 이어 월드챔피언을 확정지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4번의 대회가 더 남았지만 2위 젠슨 버튼이 4차례 모두 우승하고 페텔이 모두 리타이어를 한다고 해도 뒤집어지지 않는다.

반면 2위와 5위까지는 박빙의 점수 차로 언제든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2위 버튼과 3위 알론소의 차이는 8점, 그리고 마크 웨버는 버튼에 16점 차로 뒤진 채 4위에 포진해 있다. 5위인 루이스 해밀턴도 버튼과 32점차이지만, 앞으로 대회가 남은 것을 감안하면 2위 탈성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4명 가운데 버튼, 알론소, 해밀턴 등 3명은 이미 월드 챔피언 경험이 있다. 알론소는 2005, 2006시즌 그리고 해밀턴은 2008시즌, 버튼은 2009시즌에 각각 세계에서 가장 빠른 드라이버 자리에 올랐다.

1위 자리는 물 건너갔지만 내년 시즌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2위는 중요하다. 무엇보다 24세 페텔에게 두 시즌 연속 밀렸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들 4명은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명운을 걸고 우승을 위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페텔이 우승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월드챔피언은 확정되었지만 지난해 실속전이라는 의미와 한 시즌 최다승 도전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페텔은 올 시즌 치러진 15개의 대회에서 9번이나 우승하며 미하엘 슈마허의 한 시즌 최다승인 13승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있다. 코리아 그랑프리부터 남은 4개 대회를 모두 우승하면 타이 기록을 세울 수 있다.

예선의 경우 한 바퀴를 빨리 도는 랩타임으로 순위를 가리는데, 페텔이 15번의 그랑프리에서 무려 12번이나 예선 1위를 기록했다. 예선은 기록으로 따지고, 결선은 순위 경쟁인데 페텔은 보통 예선서 다른 선수의 기록을 본 후 1~2바퀴에서 집중을 해 가장 빠른 랩타임을 찍은 후 결선서 앞서 나간 후 절묘한 블로킹 능력으로 추월을 허용하지 않는 '우승 방정식'을 쓴다 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글=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F1 주요 선수들 출사표



13일 오후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선수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페르난도 알론소, 제바스티안 페텔, 루이스 해밀턴, (뒷줄 왼쪽부터) 파스토 말도나도, 하이메 알게수아리, 르비오 페레스. <광주·전남 사진기자단>

### 페텔 “드라이브 리듬감 승부 가를것” 슈마허 “한국 서킷 즐길만큼 도전적”

제바스티안 페텔(24·독일·레드불)은 13일 영암 F1 서킷 미디어센터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서킷은 터키 서킷을 연상시키는가 하면, 이탈리아 몬자 서킷 같은 직선 구간, 시가지 서킷과 같은 좁은 코너가 이어지는 구간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면서 “드라이브 리듬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한국대회 우승자인 페르난도 알론소(30·스페인·페라리)는 “어렵겠지만 한국 대회 2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해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알론소는 또 “시즌 챔피언이 결정됐더라도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컨스트럭터 챔피언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힘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루이스 해밀턴(26·영국·맥라렌)도 “모든 드라이버는 참여하는 경주에서 이기기를 원한다”고 했고 “지난 대회에서 2위로 코리아 그랑프리를 마쳤지만 올해는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면서 우승 욕심을 내비쳤다.

해밀턴은 “코리아 서킷이 환상적(fantastic)”이라며 “DRS 시스템이 작동되고 긴 직선 주로가 있기 때문에 매우 흥미진진한 경주를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42·독일·메르세데스)도 최근 F1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난해 한국 대회는 흥미있는 경험이었다”면서 “특히 서킷은 레이스를 충분히 즐길 만큼 도전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 대회에서도 지난 대회와 같은 레이스를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젠슨 버튼(31·영국·맥라렌)은 “영암 서킷은 매우 흥미롭게 설계된 서킷으로, 지난 일본 그랑프리에서 우승했던 분위기와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니코 로즈버그(26·독일·메르세데스)도 “지난 대회 가득찬 관중 속에서 레이스를 펼쳤다”면서 “한국 경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